

도로교통시설 생산업체 전주에 둥지

교통신호등주와 버스승강장, 안내판 등을 생산하는 도로교통시설 분야 중소기업이 전주에 공장을 짓고 본격적인 생산에 돌입했다.

한국씨티에스(주)(대표이사 임동욱)는 지난 12일 전주 제1일반산업단지 내 옛 해태제과 부지(덕진구 신북로 105)에 건립된 전주공장에서 박순종 전주부시장과 임동욱 대표이사를 비롯한 공장 임직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준공식을 가졌다.

이 업체는 도로교통시설과 교통신호 등주 등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으로 총 80억원을 투자해 전주제1산업단 1만 3,835㎡(4,158평)부지에 8,250㎡(2,500평) 규모의 공장을 건립하고 전주시민 45명의 새로운 일자리도 창출한다.

한국씨티에스(주)는 지난 1995년 설립 후 꾸준한 기술개발과 각종 인증 및 등록으로 오랜 기간 인지도와 영업망을 구축해온 기업으로 기존 신호등

전주 제1일반산업단지 한국씨티에스 전주공장 준공

1만3835㎡ 부지에 건립 45명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
횡단보도용 수신호기 등 안전사고 예방 제품 개발

보다 사고위험이 낮고 심미적으로도 아름다운 '개선형 신호등주'를 주력제품으로 생산하고 있다.

또 이 업체는 학교 앞 등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어린이 안전사고의 예방적 대응을 위해 횡단보도 신호등의 보행 또는 정지 신호시 통행자가 차도 혹은 인도 방향으로 손잡이를 인위적으로 회전시킬 수 있도록 만든 '횡단보도용 수신호기' 등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제품도 개발했다.

이외에도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고 자체 디자인회사를 설립해 버스노선정보와 행선지 도착시간, 관광정보

제공 등 버스이용객에게 버스이용과 관련한 유용정보를 제공하는 안내시스템이 부착된 다목적 승강장인 '버스쉼터', 기존 교통신호제어기를 개선해 한국 전통미를 형상화해 구현한 디자인 제품인 '교통신호제어기 차광막' 등 아이디어와 새로운 디자인을 입힌 제품으로 새로운 시장개척을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

앞서 시와 한국씨티에스(주)는 지난 2014년 12월 투자협약을 체결했으며 전주시 현장지원팀인 기업지원사무소는 한국씨티에스(주)로부터 대규모 공장부지 마련을 위한 애로사항을 접수하고 공장

부지 정보 제공 및 공장 소유주와의 연결을 통해 공장매매를 성사시켰다.

임동욱 대표는 이날 기념사를 통해 "전주에 공장을 건립하기까지 부지선정과 토지매입, 공장건축 등 크고 작은 어려움도 많았지만 적극적으로 도와준 전주시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이번 공장 준공식을 계기로 그동안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경쟁력을 강화해 명실 공히 교통신호등주 분야 최고의 기업으로 성장시켜 기업의 발전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박순종 전주시 부시장은 "한국씨티에스(주)는 교통신호등주, 버스승강장, 안내판 등을 생산하는 유망 중소기업으로 전주시는 이 업체가 작지만 강한 향토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양질의 토양을 제공하고 세심한 정성, 적극적인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채규남 기자



“중소기업의 건승을 기원... 함께 건배” 지난 12일 전주 르윈호텔에서 열린 2018 호남지역 중소기업인 신년 인사회에 송하진 도지사, 김승수 전주시장,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우기종 전라남도 정무부지사, 박병규 광주광역시 경제부시장 및 지자체, 유관기관과 지역 중소기업인들이 참석해 신년인사회를 가졌다.

코레일은 지난 12일 경기 남부권역(전주)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을 내세우며 광명역 도심공항터미널이 17일 개장한다고 소개했다.

기존에는 전주에 거주하는 해외여행객들은 노선횡수 등 선택의 폭이 적은 군산, 청주, 광주공항을 이용, 그마저도 없으면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서울을 거쳐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해야 했다.

그러나 코레일은 KTX광명역 도심공항터미널이 개장하므로써 전북도·시민의 인천국제공항 이용이 편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코레일은 전주에서 KTX를 타고 KTX광명역 도심공항터미널에서

전북도민들도 인천공항까지 신속·편리하게

광명역 공항터미널 17일 개장... 전주→광명→인천공항 이용시 소요시간 1시간 50분 내외로 단축·요금 1인당 1만5000원

KTX리무진을 이용하면 인천국제공항까지 이전 소요시간은 4시간 20분 걸리던 것이 2시간 33분 소요로 1시간 50분 내외로 이동시간이 단축된다는 설명이다.

또 KTX와 공항리무진버스 승차권(연계승차권)을 함께 결제하면 리무진 버스요금 20% 할인혜택도 있다. KTX광명역-인천국제공항 구간 요금

은 1인당 1만5,000원이며 연계승차권을 이용할 경우 20% 할인된 1만 2,000원이다.

또한 관계자는 광명역 도심공항터미널은 탑승수속부터 출국심사까지 한번에 가능하다고 말했다.

도심공항터미널은 탑승수속, 수하물 탁송, 출국심사를 미리 할 수 있고 인천공항에서는 출국심사만 마치고

외교관과 승무원 전용통로로 출국장을 통과해 탑승한다. 코레일 관계자는 "일반 출국장 통과보다 광명역 도심공항터미널을 이용할 경우 전용출국장을 통과하기 때문에 붐비고 기다릴 필요없이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이 더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안병호 코레일 여객사업본부장은 "광명역 도심공항터미널을 이용하면 자가용과 버스를 이용하는 것보다 전주에서 최대 1시간 55분, 최소 1시간 40분 이상 단축된다"며 "연간 1천만명이 넘는 지방의 해외여행객에게 빠르고 편리한 공항 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채규남 기자

社 告
참신한 인재를 찾습니다

전북 언론의 미래를 열고자 하는 전주매일신문사가 열정과 패기가 넘치는 참신한 인재를 모집합니다.

구 분	모집분야	자 격 조 건
경력기자 0명 신입기자 0명	취재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자 남·여·나이제한 없음

- ▲ 접수기간 2018년 1월 31일까지
- ▲ 제출서류 이력서 1통, 자기소개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 ▲ 전형방법 1차 서류전형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 접 수 처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4층(서노송동) 문의 063-288-9700(본사 총무팀)

전주매일

치매걱정 NO... 안전망 구축

전주시, 치매안심센터 운영
환자 집중관리 등 기능 확대

전주시는 치매안심센터 운영을 중심으로 시민들의 치매예방부터 치매환자 관리까지 살펴 치매걱정 없는 안전망을 구축하기로 했다.

전주시보건소(소장 장병호)는 기존에 운영해온 치매상담센터를 치매안심센터로 전환·운영할 계획이라고 지난 12일 밝혔다.

특히 전주시 치매안심센터는 올해부터 기존의 단순한 치매환자 상담과 등록, 관리 중심의 업무에서 더

나이가 △치매사례 관리위원회 운영 △치매환자에 대한 집중 사례관리 △치매환자 쉼터 운영 △치매가족 카페 운영 등 기능과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보건소는 리모델링 공사를 거쳐 △치매환자쉼터 △치매가족카페 △검진실 △상담실 등이 설치된 치매안심센터 공간을 구축하고 기존 치매상담센터(중화산동 소재)를 전주시보건소(중앙동 소재)로 확장·이전할 계획이다. 또 치매안심센터 조직도 예방관리팀과 등록관리팀, 쉼터지원팀으로 나눠 운영하는 등 더욱 전문적인 치매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채규남 기자

현대중공업 “올 70척 이상 선박 수주시 군산조선소 재가동 가능”

그동안 가동이 중단되어 군산뿐만 아니라 전북경제의 발목을 잡았던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조기 재가동의 희망을 품게 됐다.

최근 부산에서 개최된 조선해양업계 신년인사회에서 현대중공업 강환구 사장은 “올해 70척 이상의 선박을 수주 하면 군산조선소를 재가동할 수 있으며,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위해 선박 수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현대중공업에서는 군산시에서 요구한 군산조선소 재가동 문제의 해법에 대해 국제 조선업계

불황민을 탓하며 구체적인 재가동 계획에 대한 언급을 피해왔다.

하지만 이번 강환구 사장의 발언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위한 회사측의 의지를 밝히고 동시에 재가동 조건에 대한 구체적인 선박수주 목표 숫자까지 언급함으로써, 군산조선소 재가동에 대한 희망과 군산지역 경제에 긍정적 신호가 될 전망이다. /군산=김관문 기자

“전주시·군산시·익산시 인사 홈페이지(www.jjmaeil.com) 참조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